

북녘 가족 이번엔 만나려나

광주·전남 오늘 망향제...한·미·일 안보 수장 '이산가족 재회' 논의에 기대감

광주·전남 이산가족들이 5일 예정된 망향제를 하루 앞두고 한·미·일 3국 안보 수장들의 '이산가족 재회' 논의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들은 현 정부 들어 실향민 고향 방문 등 실질적인 대북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는 점에서 수십년 간 기약 없이 기다려 온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북5도위원회 광주시연합회는 5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장동동 '망향의 동산'에서 '망향제'를 열고, 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예정이다.

망향제는 매년 한식과 추석을 앞두고 두 차례 열렸지만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올 들어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열리게 됐다.

광주·전남 이산가족들은 지난해 행사가 열리지

못했던 만큼 올해 망향제에는 참석해 고향에 남겨 둔 가족들을 그리며 슬잔을 울릴 예정이다.

망향의 동산에는 1세대 실향민의 묘 400여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이북5도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고향을 향해 망향비를 세워놓았다.

이들은 특히 지난 2일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미국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대화채널 복원 등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져 제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현 정부 들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음에도, 대북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대화 채널이 끊긴 상태다.

고령인 1세대 실향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향민들의 희망 고문도

여전한 실정이다.

지난 2월 기준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한 광주·전남 이산가족 수는 모두 1170명(광주 461명·전남 709명)으로, 지난해 추석을 앞둔 9월 기준 1206명(광주 485명·전남 721명)보다 36명이나 줄었다.

1·4후퇴 때 내려와 70년째 광주에서 살고 있는 명상업(90·광주시 서구 양동)씨는 "고향 땅 한 번이라도 밟아보자는 소원을 가지고 산다"면서 "1세대 실향민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있다면 아픈 몸을 끌고라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북도민회 광주시연합회장 오건용(78) 씨는 "이산가족 상봉은 짧은 만남 이후 긴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한다"면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거리두기' 부활절 미사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부활절인 4일 광주 북구 임동 주교좌대성당에서 신자들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부활절 미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북구, 도심경관 개선...비엔날레 손님맞이 '이상 무'

광주시 북구가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맞춰 도심경관을 개선하고 관람객 맞이 준비를 마쳤다.

4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와 광주시의 지원으로 4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 시범사업인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비엔날레광장 연계 보행진화 공공디자인 ▲비엔날레 아트샐러 및 웰컴사인 ▲광주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구축 ▲좋은 빛 상징거리화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비엔날레광장 연계 보행진화 공공디자인은 비엔날레 광장과 인접한 보도를 확장해 관람객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버스킹 공연, 주민 축제 등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구축사업은 비엔날레 전시관 외벽을 활용해 미디어아트로 비엔날레

전시 기간 중 금·토·공휴일 야간에 미디어아트스트 진시영 작가의 '빛의 나무' 영상이 상영되며, 향후 수시 운영을 통해 비엔날레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계획이다.

좋은 빛 상징거리화 조성사업은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디자인가로등을 설치해 빛꽃과 어우러진 비엔날레 거리의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행사 폐막 이후 용봉동 빛꽃거리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 대입전형 시행계획안 발표

의학계열 지역인재 60% 확대 의과대학 '농어촌 전형' 신설

2023학년도 46명 늘어난 137명...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전남대학교가 2023학년도 의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안을 4일 발표했다.

의학 계열 전체 모집인원 220명 가운데 137명을 지역인재 전형(62%)으로 선발한다. 이는 2022학년도(91명·41%)에 비해 46명이 늘어난 것이다.

전공별로는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 125명 중 80명(2022학년도 51명),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전체 정원 35명 중 21명(17명), 약학부는 전체 정원 60명 중 36명(2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의학 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은 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에게 주어진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100%로 일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로, 정시모집은 수능성적 100%로 각각 선발한다. 의과대학에도 농어촌 전형을 신설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의대 진학의 기회도 넓혀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크게 완화한

다.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2022학년도까지는 국어·영어·수학·과학탐구(1) 4개 영역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했으나 국어·영어·수학·과학탐구(1) 중 수험생이 선택하는 3개 영역 합을 5등급 이내로 완화한다.

수시 일반전형도 국어·영어·수학·과학탐구(1) 4개 영역 합을 5등급 이내에서 3개 영역 합이 4등급 이내로 완화하는 등 의학 계열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전체적으로 낮췄다.

여수캠퍼스는 수능최저학력 기준과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폐지해 수험생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결정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인 면접전형과 수산생명과학과 및 해양경찰학과의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유지된다.

양광열 전남대 입학본부장은 "2023학년도 의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많은 수험생이 전남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능최저 기준과 면접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초등 4학년 이상 학폭 실태 조사

전남교육청, 이달말까지 온라인

전남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초등 4학년 이상 전체 학생 대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온라인지원 시스템 정착을 모색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체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2020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학교폭력을 목격했거나 피해·가해 경험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수립에 활용한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 1·2월 이들 동안 여수 유캐슬호텔에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주무관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 연찬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난 3월 도입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 '공감마당'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했다.

학교폭력사안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 '공감마당'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간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보고와 접수, 심의 또는 자체해결 등 단계별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관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도내 22개 시 군 교육지원청 별 학교폭력 통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병삼 전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처리까지 적극적으로 일관된 업무처리가 중요한 만큼 학교폭력 전담 주무관들의 역량강화 와 다양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장성군 백양사 부근

명품 한옥 전원주택 매매

전통 한옥명장이 대목장이 건축

- 대지 754㎡, 건물 142㎡
별도 담 704㎡
- 민박, 펜션 등 건축 가능
텃밭,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 가능
- 내부구조 : 방 3개, 거실, 욕실 2개
별실 민박 운영 가능
야외 평상, 야외 화장실 등
- 중앙관정 설치
→ 지하 150m 암반수 사용
- 500만~1천만원 상당의 조경수
→ 주택 가치 상승

매물 가격 : 12억원 (일부 조정 가)

위치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풍로 1959-7 면적 건물 142㎡ 대지 754㎡ / 441평 100평 ↑

상담문의 062)226-7501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